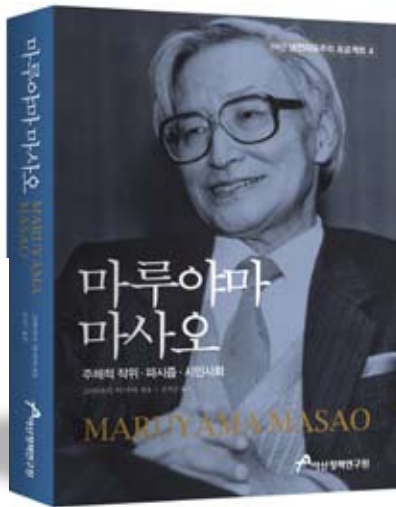




마루야마 마사오

주체적 작위 · 파시즘 · 시민사회

분 류 | 정치, 사회

제 목 | 마루야마 마사오: 주체적 작위 · 파시즘 · 시민사회

역은이 | 고바야시 마사아

옮긴이 | 김석근

지 면 | 420쪽

정 가 | 20,000원

판 형 | 신국판

ISBN | 978-89-97046-99-7 03300

발행일 | 2013 년 7월 4일

아산정책연구원

발행처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전화 02-730-5842(대) 팩스 02-730-5876

담당자 박현아 연구원 parkha@asaninst.org

■ 역은이

고바야시 마사아(小林正弥) - 지바(千葉)대학 법경학부 교수. 전공은 정치철학과 공공철학이다. 공공철학과 공동체주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와 교류하면서 NHK에서 방영된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대학 강의에서 해설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 외에 공화주의, 지구적 영성(spirituality), 환경 · 복지, 정치적 부패 등을 연구 테마로 삼고 있다.

쓴 책으로 《정치적 은고주의론-일본정치연구서설政治的恩顧主義論-日本政治研究序説》(2000), 《비전(非戰)의 철학 非戰の哲学》(2003), 《우애 혁명은 가능한가-공공철학으로 생각한다友愛革命は可能か-公共哲学から考える》(2010), 《샌델의 정치철학-‘정의’는 가능한가サンデルの政治哲学-‘正義’とは何か》(2010)가 있다. 그 외에 편집한 책으로는 《전쟁 비판의 공공철학-〈반테러〉 세계전쟁에서의 법과 정치戦争批判の公共哲学-〈反テロ〉世界戦争における法と政治》(2003), 《커뮤니티-공공성 · 구성원(Communs) · 커뮤니티어니즘コミュニティ-公共性 · コモンズ · コミュニタリアニズム》(2010) 등이 있다. [개인 홈페이지 <http://masaya-kobayashi.net/>]

■ 옮긴이

김석근 - 아산정책연구원 인문연구센터장이자 아산서원 부원장이다. 동양철학, 한국정치사상을 전공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도쿄대학 법학부 대학원에서 연구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주요 저작들 《일본정치사상사연구》, 《일본의 사상》,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 《충성과 반역: 전환기 일본의 정신사적 위상》,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를 우리 말로 옮겼으며, 같이 쓴 책으로 《한국정치사상사》,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형성사》, 《福本和夫の研究》, 《文明 · 開化 · 平和: 日本と韓國》 등이 있다.

■ 책에 대하여

마루야마 마사오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의 병리(病理)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을 보여준 가장 뛰어난 일본의 정치학자이다. 그는 19세기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역사의 성격을 냉철하게 해부하였고, 패전 후 혼란과 침체 속에서 냉정하고도 진보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었다. 마루야마는 일본 전후 민주주의 의식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민주주의를 수립한 정신적 지주로 불리고 있다.

이 책의 저자 고바야시 마사야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텍스트에 준거하여 그의 사상의 전체적 그림을 정밀하게 그려냈다. 이 책은 사상가이자 철학자로서 일본 사회의 현실과 끊임없이 씨름했던 마루야마의 모습을 부각함과 동시에, 그 사상적 한계를 짚어감으로써 마루야마의 학문과 사상을 비판적·발전적으로 계승한다. 또한 이 책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마루야마의 사상으로부터 무엇을 계승해야 하고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지침을 제시한다. 그의 통찰에는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의미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이는 한국인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 - 주체적 작위·파시즘·시민사회》는 고바야시 마사야(小林正) 교수가 편집해서 출간한 《丸山眞男論 - 主的作、ファシズム、市民社》(東京大學出版會, 2003)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동시에 사상가이기도 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과 행동을 정면에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룬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모두 8명의 학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측면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를 논하고 있는 이 책은 <공공철학총서(公共哲學叢書)>의 한 권이기도 하다.

이미 생존했을 때부터 그러기는 했지만, 1996년 8월 15일 타계한 이후 마루야마에 대한 논의는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 전집(丸山眞男集)》 전 16권 별권 1, 《마루야마 마사오 좌담(丸山眞男座談)》 1~9, 《마루야마 마사오 강의록(丸山眞男講義錄)》 전 7책 에 이어 《마루야마 마사오 서한집(丸山眞男書簡集)》(전 5권), 《마루야마 마사오 회고담(丸山眞男回顧談)》(상·하), 《마루야마 마사오 설문집(丸山眞男文集)》(전 4권)이 간행되었다. 계속 간행되고 있는 《마루야마 마사오 수첩(丸山眞男手帖)》, 도쿄(東京)여자대학 도서관에 설립된 <마루야마 마사오 문고(丸山眞男文庫)> 등을 생각해 보면, 그는 이미 일본 지식인 사회의 공통된 지적인 유산이 되어 있는 듯하다. 아울러 동의하건 하지 않건 간에, 수많은 논의와 비판 그 자체가 그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하겠다.

출간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옮긴이가 보기에 이 책이 갖는 의미는 여전히 신선함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왜 그런가?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책 자체가 갖는 학술적 의의는 현실과는 다소 무관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순수 학술적인 측면 외에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서 일어난 이념적 상황이나 정치적 변화가 오히려 이 책이 갖는 의미를 한층 더 새롭게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고바야시 마사야 교수 역시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책의 내용은 지금도 수정할 필요가 그다지 없으며, 여전히 신선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책이 간행된 2003년 당시 학계와 언론계에서 가장 강력했으며 또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포스트모던 학파의 마루야마 비판 - 주로 그가 시대에 뒤떨어진 ‘근대주의자(近代主義者)’ 내지 ‘국민주의자(民主主義者)’라는 것, 그리고 ‘일본문화의 고층(日本文化の古層)’을 인정한다는 점 - 이 오히려 수그러들었다는 것이다. 세월의 흐름은 그들로 하여금 마루야마 마사오가 갖는 의미를 일정 부분 인정하게 해주었다고 한

다. 그래서 “이 책은 포스트모던 학파의 마루야마 해석에 보이는 문제점을 학술적 출판으로서서는 아마도 가장 과감하고 또 대담하게 제시한 작품인 만큼, 이 책의 의의는 변하지 않음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 가치는 한층 더 분명해졌다.”라는 것이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본 사회의 변화, 특히 정치변동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장기 집권한 자민당(自民黨)의 보수정권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2009년에는 민주당(民主黨) 정권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지난 2012년 말 자민당 정권이 다시금 부활했다. 2012년 말의 총선거에서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는 중의원에서 제3당이 되었다. 말하자면 현재 일본 정치는 보수화와 우경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학자이자 동시에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마루야마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지난날의 일본 파시즘 내지 보수우경화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 하겠다. 일본적인 파시즘(군국주의와 초국가주의)이야말로 마루야마가 무엇보다 예리하게 비판했던 역사적 현상이며, 그 정신구조를 여실히 분석해서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루야마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내지 파시즘을 언제나 우려했으며, 또 일찌감치 그것을 설파했던 ‘예언적 경고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참에 등장한 일본의 보수 우경화 현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즉각적으로 마루야마와 그의 파시즘 비판을 떠올리게 해준다.

마루야마에 대해서는 그의 주요 저서들이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그의 전기와 사상을 다룬 책 역시 두어 권 번역·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된 이 책은 파시즘, 주체적 작위,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비판적 지식인으로 마루야마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마루야마의 비판적 논의를 통해서 현대 일본 사회의 이념적 사상적 상황을 주체적 작위와 시민사회라는 시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옮긴이의 말 중에서

■ 목차

한국어판 서문	5	7. ‘경고자(警告者)로서 마루야마와 에콜로지적 재정식화	55
		8. 비방론과 호교론(護敎論)의 이항대립(二項對立)을 넘어서	59
서장 마루야마 마사오와 공공철학			
- 논쟁적 구도 -	21	1부 주체적 작위	
고바야시 마사야(小林正彌)		70	
1. 공공철학의 개념	22	제1장 마루야마 마사오의 세 가지 주체상(主體像)	
2. 전후 사상과 혁신적 공공철학	24	마루야마의 후쿠자와·토쿠빌 이해를 실마리로 삼아	
3. 공공철학의 요건	29	우노 시게키(宇野重規)	
4. 마루야마 비판의 제 유형과 비방론	34	1. 머리말	
5. ‘국민주의자 마루야마’라는 외재적 비판	45	2. 초기 마루야마의 주체의 아포리아(Aporia)	
6. ‘전시(戰時)동원론자 마루야마’라는 비방	50	76	

3. 주체와 내셔널리즘 – 국민주체 –	87
4. 후쿠자와 유키치의 전회(轉回)	
– 자기상대화 주체(自己相對化 主體) –	99
5. 마루야마의 토크빌적 계기	
– 결사형성적 주체(結社形成的主體) –	107
6. 맺음말	119

제2장 마루야마 마사오의 ‘작위’론의 전개

– 재해석과 재정식화(再定式化)를 향해서 –	122
세키야 노보루(關谷昇)	

1. 머리말	122
2. ‘작위’의 원형(原形)	127
3. 마루야마의 ‘작위’론의 성립조건	135
4. ‘작위’론을 둘러싼 외재적 비판의 함정	149
5. ‘작위’론의 구체적 발전	155
6. ‘소여에서 작위로’의 논리	167
7. 맺음말	
– ‘자연’과 ‘작위’의 변증법을 향해서 –	174

Ⅱ부 | 파시즘과 시민사회

제3장 마루야마 마사오와 역사를 보는 눈	180
야마구치 야스시(山口定)	
1. 머리말	180
2. 파시즘 연구와 마루야마 마사오	182
3. 마루야마 이론에서 역사의 변동을 보는 눈과 일본 문화	191
4. 마루야마 이론에서 ‘시민’과 ‘시민사회’	201
5. 맺음말	212

제4장 마루야마 마사오와 렌초 데 펠리체

– 두 개의 파시즘론 –	214
이시다 겐(石田憲)	
1. ‘계몽적’ 파시즘론의 계보	214
2. 마루야마와 데 펠리체의 공통성	
–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를 넘어서 –	218
3. 두 가지 파시즘론의 상호보완 가능성	
– 파시즘 해석의 풍요로움 –	227

4. 이질성의 배경과 양극 분해	
–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의 사이 –	236
5. ‘계몽’에서 ‘역사’로	250

제5장 마루야마 마사오의 ‘시민사회’론	253
히라이시 나오히키(平石直昭)	

1. 관심의 소재	253
2. 마루야마의 ‘시민사회’ 용례와 그 의미연관(意味連關) 검토	260
3. 마무리	271

Ⅲ장 |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적 발전

– 그 전체상(全體像)의 비판적 재구성 –	273
고바야시 마사아키(小林正彌)	

1. 머리말: 시기구분론의 의의	274
2. 초기=근대주의 시기 – 일본 파시즘 대(對) 주체적 작위 –	277
3. 중기=역설적 공공주의 시기	
– 전후 파시즘 대(對) 시민세계 –	303
4. 후기=다원적 보편주의 시기	
– 고층(古層) 대(對) 정신혁명 –	341
5. 자연적 작위의 공공철학을 향해서	
– 문화와 정치의 포괄적 작위 –	361

특론(特論) 1	369
진단자(診斷者)로서 막스 베버와 마루야마 마사오	
오가와 아리요시(小川有美)	

특론(特論) 2	376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 21세기 공공철학을 위하여 –	
야마와키 나오히키(山脇直司)	

율은이 후기	383
--------	-----

율긴이의 말	389
집필자 소개	394
주석	396